

10만원 이하 우리농산물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농식품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후속대책 마련



김영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에 부착할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등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증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 '착한선물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만큼 선물 가격 인상이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활

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치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화훼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기로 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확대해 올해 2000개에서 내년엔 3200개까지 확대한다.

과수의 경우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뉴스스

기아차, 더 뉴 레이 출시...신차급 디자인 변경

모던한 디자인 · 편의사양 등 신규트림 추가



기아자동차가 레이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한 '더 뉴 레이'를 출시했다.

기아자동차는 13일 서울 압구정동 복합 브랜드 체험 공간 'BEAT360'에서 '더 뉴 레이'의 사진영상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더 뉴 레이에는 ▲모던한 내·외장 디자인 ▲안전·편의사양, 튜닝 커스터마이징 상품 신규 적용 ▲고객 선호사양이 반영된 신규트림 추가 등으로 신차급 변신을 했다.

더 뉴 레이의 앞모습은 바다와 동일한 컬러의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에 경쾌한 느낌의 와이드 허니콤(벌집모양) 패턴을 넣어 신뜻해졌다.

헤드램프부 상단의 베젤과 하단의 LED 주간주행등(DRL) 사이에 위치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전면부의 강인한 인상을 준다. 후면부에는 와이드 허니콤 패턴을 긴 바(Bar) 형태의 테일게이트 가니쉬에

적용했다. 특히 테일게이트 가니쉬는 C자 형태의 가로형 리어램프와 연결돼 뒷모습에 와이드한 느낌과 안정감을 더했다.

실내는 스포티하고 입체감 있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심플하고 와이드한 이미지의 센터페시아 메탈 베젤로 고급감을 강화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기어노브 레이아웃 개성을 표현했다.

카와 1.0 MP 엔진을 장착한 더 뉴 레이의 연비는 13km/l로 높은 경차의 기본인 경제성을 더욱 끌어올렸다. 또 급제동 경보 시스템(EBS)을 모든 트림에 기본적용하고 기존의 에어백시스템에 홀로버 센서(전복감지)를 추가해 안전성을 높였다.

기아차는 다양한 더 뉴 레이 전용 튜닝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인기 바디컬러 3종(말기 베이지, 순백색, 오토라블랙)을 바탕으로 ▲루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라디에이터 그릴 ▲테일게이트 가니쉬 등에 4종의 포인트 컬러와 ▲번호판 LED 램프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 '튜닝 외장 드레스업 패키지'를 통해 고객의 자신만의 레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아차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반려동물 용품 '튜닝 펫' 3종을 선보이고 더 뉴 레이에 최초로 적용했다. '튜닝 펫'은 ▲카시트(이동식 케이지) ▲카웬스(1-2열 중간격벽) ▲2열용 방오 시트 커버 등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고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량을 뛰어넘는 공간 활용성은 여전히 더 뉴 레이의 강점이다.

레이의 특징인 2열 동승석 방향의 와이드 오픈 슬라이딩 도어는 탑승자의 승·하차와 유모차 스키 등 큰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편리하게 해준다. 슬라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는 6:4의 비율로 완전히 접혀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트렁크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2열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접으면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의 약 네 배 정도(1324L)로 소형 SUV 수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가솔린 모델 가격은 ▲더럭스 1315만원 ▲트렌트 1380만원 ▲럭셔리 1455만원 ▲프로세서지 1570만원이며, 밴(VAN) 모델은 ▲기본형 1210만원 ▲고급형 1265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더 뉴 레이는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무장했다"며 "레이만의 유니크함과 독보적인 공간성으로 점차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가계 신용대출, 두달째 '사상 최대' 증가...이례적 폭증

신용대출 3조7000억원 늘어...주택담보대출은 3조 증가로 증가세 소폭 둔화

지난달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7년 1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6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지난 2010~2014년 11월 평균치(3조9000억원)보다는 높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늘어 10월(3조3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지난달 집담대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축

소된 영향으로 추세적 둔화세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가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9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폭 증가다. 지난 10월 3조5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경신한지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통상 추석 연휴를 전후로 소비가 많이 늘면서 신용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한다. 하지만 두달째 증가폭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예년에 비해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에 따른 소비 증가의 여파가 지난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값 결제 등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다,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스

2017년 한국인 인기 여행지 1위 '제주'... '오사카' 제쳤다

스카이스캐너, 자유여행 트렌드 분석 발표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2017년 한국인이 검색한 항공권 약 6000만 건을 분석한 2017 한국인 자유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한해 한국인 자유여행객이 관심이 가장 컸던 여행지는 우리나라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는 2위

로 내려갔다.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0개 도시는 ▲한국 제주, ▲일본 오사카, ▲일본 도쿄, ▲일본 후쿠오카,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홍콩, ▲대만 타이베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세부, ▲미국 괌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여행지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인기 여행지 12위를 차지했던 다낭은 올해 6위에 오르며 베트남 여행지 중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다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15위로 6단계 상승했으며, 베트남 호치민도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7위로 급부상했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